

전웅태, 근대5종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광주시청〉

남자리레이 정진화와 호흡
수영·펜싱 등 전 종목 1위
개인·단체전 다관왕 도전

2020도쿄올림픽 근대5종 동메달리스트 전웅태(27·광주시청)가 당시 4위를 한 정진화(33·한국도지주택공사)와 함께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던 아쉬움을 털어냈다.

전웅태와 정진화는 25일 새벽(한국시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2022 근대5종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리레이에서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근대5종대표팀이 내세운 세계선수권대회 오프닝 경기 남자계주 멤버는 근대5종 세계랭킹 1위 전웅태, 세계랭킹 7위이자 베

태랑 정진화였다. 전웅태·정진화는 수영, 펜싱, 승마, 레이저런(사격+육상) 모두 1위를 하며 1,427점을 획득, 이집트(1,419점)와 체코(1,408점)를 제치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전웅태·정진화는 펜싱 랭킹라운드에서 37승11패로 259점을 획득, 우크라이나와 개최국 이집트와의 격차를 벌리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펜싱보너스라운드에서도 랭킹라운드 37승의 압도적인 이점을 살려 선두를 유지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90분 경기 방식의 첫 경기 승마 경기에서도 300점 만점을 받았다. 승마는 13개 참가팀 중 한국 포함 7개 팀이 만점을 기록했다.

전웅태·정진화는 2명의 선수가 각각 100m를 수영하는 수영에서도 1분51초37로 독일(1분52초46)을 제치고 가장 먼저 터치패



25일 새벽(한국시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2022 근대5종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리레이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전웅태(오른쪽)와 정진화가 메달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드를 찍어 328점을 얻었다. 이전 경기 점수 합산기록(핸디캡 시간)에

따라, 출발하는 마지막 레이저런에서는 2위 우크라이나보다 19초 먼저 출발했다.

전웅태가 먼저 뛰고 이어 정진화가 바통을 이어받았으며 주력 종목답게 이번은 없었다. 레이저런도 압도적인 1위였다. 결승 타이프를 끊은 정진화는 먼저 와 기다리고 있던 전웅태를 끌어안고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전웅태는 국제근대5종연맹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 시즌은 한국 팀에게 매우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항상 개인이 아닌 팀으로 함께 한다”며 다시 한번 한국 특유의 팀워크를 자랑했다.

정진화는 “2017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대한민국 사상 첫 개인 금메달을 땀던 이집트에서 팀 동료 전웅태와 또 다른 우승을 거머쥐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웅태는 남은 종목인 개인전, 단체전, 혼성리레이 등에도 나설 수 있어 다관왕이 예상된다.

한편, 남자팀만큼이나 환상적 팀워크를 자랑하는 김세희(BNK 저축은행)와 김선우(경기도청)는 26일 새벽 여자리레이에서 한국대표팀의 두 번째 메달에 도전한다.

/최진화 기자



훈련하는 송민규 남자 축구 대표팀의 송민규가 25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시티 스포츠 파크 어슬레틱스T&F에서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광주여대 안산, 양궁월드컵 4차대회 2관왕

김우진 개인·단체전 ‘금’

안산(광주여대)과 김우진(청주시청)이 2022 현대양궁월드컵 4차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안산은 25일(한국시간)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자 리커브 결승에서 이가현(대전시체육회)을 6-2(29-28 26-27 27-26 30-29)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따냈다.

앞서 이가현, 강채영(현대모비스)과 함께 출전한 단체전 결승에서 영국을 6-0(55-52 55-52 56-53)으로 물리치고 우승한 안산은 이로써 이번 대회 2관왕에 오르며 “2022 도쿄 올림픽 3관왕”의 위력을 뽐냈다.

여자 개인전 은메달은 이가현의 차지가 된 가운데,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강채영이 카타리나 바우어(독일)에게 6-2(27-27 29-27 30-27 29-29)로 이겨 동메달의 주인이 됐다.

이에 따라 한국 선수들이 여자 개인전 메



왼쪽부터 여자 리커브 대표팀의 안산, 이가현, 강채영. /세계양궁연맹 홈페이지

달을 ‘씩쓸이’ 했다. 올해 4차례 월드컵에서 한 나라가 특정 종목 메달을 다 가져간 것은 리커브와 컴파운드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남자부에서는 김우진이 단체전과 개인전, 2관왕에 올랐다.

김우진은 김제덕(경북일고), 오진혁(현

대제철)과 함께 나선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스페인을 6-0(56-54 60-55 59-56)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따냈다.

이어 개인전 결승에서는 마우로 네스폴리(이탈리아)에게 7-1(29-28 29-28 29-29 30-28)로 이겨 이번 대회 자신의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전남당구연맹 김행직 3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

전남당구연맹 김행직(30)이 3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김행직은 지난 23일 전북 정읍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캐슬 3쿠션 일반부 남자 결승전에서 최성원(부산시체육회)을 50-35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 2019년 철원 오대살배 3쿠션 전국당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3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한 김행직은 이번 대회를 통해 랭킹포인트 120점을 획득해 총점 609점으로 국내 랭킹 1위 자리를 되찾았다.

김행직은앞선 4강에서 강자인(충남체육

회)을 29이닝 만에 50-38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한편, 포켓9볼 복식경기에서도 장문석-서서아 조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문석-서서아 조는 포켓9볼 복식 4강에서 하민욱-최솔잎(부산) 조를 8-7 이기고 결승에 올라, 결승에서 정영하-김윤미(서울) 조를 세트스코어 8-4로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최진화 기자

페퍼저축은행, 일본 V리그 NEC와 자매결연

페퍼저축은행이 25일 일본 V리그 NEC 레드 로켓츠(이하 NEC)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날 일본 NEC의 훈련장인 NEC아레나에서 진행된 자매결연 협약식에는 김형실 페퍼저축은행 감독, 카네코 타카유키 NEC 감독을 비롯해 양팀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사무국이 참석했다. 이번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양팀은 향후에도 양국을 오가며 정기 훈련과 연습경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4일 일본 전지훈련을 떠났다. 30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양팀의 자매결연 체결 후 진행되는 첫 훈련이다. 올해는 페퍼저축은행이 NEC 훈련장으로

방문해 합동 훈련 및 연습 경기를 가진다.

NEC는 1978년에 창단한 뒤 일본 V리그 역대 7회 우승을 달성한 전통의 팀이다. 지난 21-22시즌 일본 V리그 정규리그에서 총 12게임 중 4위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소속 선수는 주장인 후루야 치나미와 올해 VNL에서 맹활약한 코가 사리나, 시마무라 하루요 등이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카지하라 타케시 NEC그룹 스포츠사업 총괄 본부장은 “한국의 신생 구단 AI페퍼스방문을 환영한다”며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 간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양팀 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혜원 기자

KIA 황대인 ‘첫 5안타+6타점’ 불방망이

5월 이어 월간 타점 공동 1위

KIA 타이거즈 젊은 거포 황대인(26)이 후반기 시작과 함께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다.

황대인은 지난 24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경기에서 4번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5안타 1홈런 6타점을 기록했다. 한 경기 5안타는 지난 2015년 입단 이래 처음이다.

프로 8년차를 맞아 올 시즌 풀타임 출전 중인 황대인에게 이날은 ‘인생 경기’였다.

황대인은 후반기 첫 경기였던 22일 롯데전에서 무안타에 머물렀다. 23일 2차전에서는 2안타 2타점을 기록하더니 다음날은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팀의 23-0 대승을 이끌었다.

황대인은 시즌 초반부터 주전 1루수로서 기회를 계속 부여받고 있었으나 지난 4월 타율 0.258 1홈런 13타점에 그치며 타석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5월 완벽하게 반등했다. 타율 0.312 7홈런 31타점으로 월간 타점 1위를 꿰찼다.

황대인은 소크라테스의 부재 속 7월 타점 14개를 기록하면서 LG 김현수, 채은성과 함께 이 부문 공동 1위에 도전했다. 황대인은 5월에 이어 올 시즌 개인 2번째 월간 타점왕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다.



황대인

KIA, 29일 ‘호랑이의 날’

팬 추첨 등 이벤트 마련

KIA 타이거즈가 오는 2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SSG 랜더스와의 경기를 ‘호랑이의 날’로 정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KIA는 이날 경기 시구자로 챔피언스필드 계단에 그려진 호랑이 벽화의 작가, 황중환 조선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교수를

초청한다. 이날 경기에 앞서 모든 사람을 위해 응원 노래를 부르는 ‘송포유’ 팀의 ‘코리아 타이거’ 공연이 펼쳐진다. 송포유는 대형 호랑이 인형과 함께 신나는 노래로 현장의 분위기를 돋울 예정이다.

KIA는 또 챔피언스필드 안에 있는 호랑이 이미지나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업로드하는 팬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또한 KIA는 26일부터 홈 6연전을 맞아 매일 관객 1,000명(선착순)에게 하이드로겔 아이패치를 증정한다.

/조혜원 기자